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운명파도 같은 우연



안영근\_ 인하대 행정학과 77학번, 제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장,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인천·남구을(현))

### 1977년 대학에 입학해 1학년 한 해를 아무 것도 모르고 지냈다.

2학년 때 송기숙 선생의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자료를 친구를 통해 읽게 되었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국민교육헌장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음모를 합리화하는 세뇌교육이라는 것이었다. 그 글을 읽고 국민교육헌장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그야말로 박정희 1인의 유일자배체제를 획책하는 내용에 다름아니었다.

78년 7월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단독 입후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2,583명 중 기권 5표를 제외한 2,57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교련 시간이었다. 일 주일에 한 번씩 있던 교련 시간에는 학과를 망라해 여러 학생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다. 그때 몇 사람이 모여 잡담을 하다가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인천 지역에서 지하서클을 하던 조영호(응용물리3)가 체제 비판 유인물을 돌리자는 제안을 했다. 나는 이때 법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바로 수용을 했다. 법대의 안철곤 등에도 제안을 해서 바로 승낙을 받았다. 당시 인하대는 공대였다가 종합대로 바뀐 지 얼마

안 될 때라 사회과학서클은 전무했고 따라서 선배가 후배를 의식화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교련 시간에 나온 체제 비판의 얘기는 완전히 자연발생적인 것이었고 나 또한 약간의 사전학습도 없이 순전히 감성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용호의 제안에 응했던 것이다. 물론 학교 밖에서 의식화 과정을 밟은 조용호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말이다.

조용호가 야학하는 곳에 가서 유신과 장기독재를 비판하는 글을 가리방으로 7~800매를 굶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인하대학교 1호관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아래로 뿌렸다. 원래는 유인물이 뿌러지면서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일면 다른 팀에서 집회를 주도하기로 했는데 다 뿌리고 내려와 보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유인물을 다 뿌리고 내려와서 교련 수업에 들어갔더니 유인물을 들고 온 학생들이 있었고 몇 명씩 모여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들 좋은 내용이다, 맞는 말이다 하는 게 들렸고 나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날 사건은 누구도 발각되지 않은 채 소리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이때가 11월 초였다. 그러다 중순경 한 번 더 하지는 의견이 나와 조용호, 곽한왕(국문), 양홍영(기계) 등 10여 명이 강의실을 분담해 유인물을 뿌렸다. 데모는 계획하지 않았다.

이때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아무도 검거되지 않아 별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인데 보름 뒤쯤 경찰이 집에 잡으러 왔다. 보름 동안 수사받고 구속되었다. 유인물 뿌릴 때 법전을 보고 긴급조치9호가 뭔지 처음 알았는데 주범은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고, 그밖에도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유일체제에 대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 항의 표시였는데 감옥살이까지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나도 제법 오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옥에서는 독방에 있었는데 너무 더러워서 견디기 힘들었다. 변기로 똥물이 올라왔고 밤에는 잠을 자다가 쥐가 귀를 깨물어 깨는 일이 다반사였다. 1심에서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2년6월을 받았고 항소해서 인천에 있다 서울 구치소로 옮겨졌다. 거기로 가니 소위 서울 지역의 맹장들은 다 모여 있었다. 나처럼 즉흥적으로 일을 벌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의식화된 사람들이었다. 당시는 미제국주의란 말이 없을 정도로 사회과학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할 때였다. 나는 교도소 내에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계기로 해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서양경제사론>, <유물론적 역사관> 등으로 서서히 나를 무장해 나갔다. 학교에서는

홍사단아카데미를 하면서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사르트르의 〈존재론〉 등을 보았지만 거기서 사회 모순에 대해 알고 또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까지 생각할 수는 없었다.

79년 봄, 감옥에 있을 때 카터가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 이때 카터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김포로 오지 않고 오산 미군공항에 내렸는데 사실 그때 우리는 카터가 한국 와서 우릴 빼줄 줄 알았다.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구세주였던 것이다.

2심에서 1년6개월 받고 약 여덟 달을 살다 79년 7월 17일 제헌절 특사로 나왔다. 동료들은 8.15 때 대부분 나왔다. 그리고 얼마 뒤 10.26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였는데 나는 석방 뒤에서야 본격적으로 의식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죽었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체육관 선거로 최규하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규탄하는 분위기가 거세었다. 그해 11월 24일 YWCA 위장결혼식 사건 때 나는 단순기담자로 참여했는데 3일 뒤 집으로 잡으러 왔다. 서빙고의 보안사로 끌려가 1주일 간 무지하게 맞았다. 강서경찰서에서 구류 29일을 살았는데 제주 4.3항쟁을 소설로 썼던 현기영 씨가 먼저 들어와 맞고 있었다. 철창타기를 시켰는데 철창에 매달려 있다가 힘이 빠져 아래로 떨어지면 무차별구타를 가했고, 항의라도 할라치면 몸이 늘씬하게 뻗을 때까지 마구 구타를 가했다. 온종일 말 한 마디 못하게 한 채 무릎을 꿇렸고 잠을 잔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80년에 복학을 하니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학내 운동권은 서클 중심에서 학생회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는데 지휘계통이 단일화돼 조직 동원이 매우 쉬워졌다. 또 학내 방송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운동의 대중화가 매우 용이해졌다. 모이자 하면 한꺼번에 수천 명이 모여 들었고, 학생들의 비판의식도 매우 치열해 있었다. 2~3백 명이 밤을 새워 토론하는 분위기가 학내에 퍼져 있었다. 이즈음 읽은 책이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였는데 감옥에서 조금씩 트이기 시작한 눈이 활짝 개안하는 느낌이었다. 한국 현대사와 국제정치 본질을 꿰뚫은 이 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독재, 폭력, 평등, 반전, 민족 화해, 외세 지배 등의 문제에 대해 감감했던 나의 의식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나를 비롯해 극우적이고 광적인 반공주의와 냉전사상, 외세의존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의 의식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

꾸어 놓은 것이다.

80년 봄은 오래 가지 않았다. 5.17이 나면서부터는 가만 있어도 잡아기는 세상이 되었다. 나도 다시 징역을 살게 됐다. 요시찰 대상은 아니었으나 조용호가 잡히면서 나도 잡혀가게 됐다. 8월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감옥 갔다 나오니 열흘 뒤 부친께서 돌아가셨다. 고혈압이었다. 신경을 많이 쓰신 까닭일 게다. 당시 구속학생들의 모친들끼리 모여서 면회를 다녔다. 나는 4형제의 둘째였는데 집에서서는 별종으로 여겼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되겠느냐, 안 된다, 왜 혼자서 희생당하고 말 일을 하느냐”고 주위에서 만류가 심했다. 하지만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쳐줘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안기부에서 취업 제안이 있었지만 관심도 안 가졌다. 내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다. 유신이 무너질 줄 몰랐다. 천년만년 갈 줄 알았다. 전두환 정권도 무너지리라곤 생각도 못 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독재타도와 민주쟁취가 구호에 그칠 줄 알았다. 희망은 책 속이나 있는 것이었다. 승리는 외국의 혁명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러시아혁명사, 중국혁명사 등에서나 겨우 위안을 받았다. 혁명과 무장봉기를 통해서나 가능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계속 독재타도와 민주쟁취를 외쳐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패배감이라 할 것까진 없지만 이러한 비관적 전망 속에 학생운동권은 노동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모여 있는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추동하고 봉기하는 일이 과제라 여기게 되었다.

자존심 때문이라 해도 좋고, 소영웅심이라 해도 좋다. 한 번 시작하니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 한 번 두 번 감옥에 다녀오고 나니 저절로 직업운동가가 되어 있었다. 82년엔 고 제정구 선생이 의장을 하셨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에서 집행국장으로 일했다. 다음 해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85년부터는 민통련에서 일했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 때 다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92년 민중당 정책위원으로 일을 했다. 이전까지 운동권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집회를 하고 하다 보니 양김씨와 그들이 만든 정당의 하수인 역할 밖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민중당을 통해 제대로 된 정치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이 든 것이다.

유신잔당도 아니고 양김씨의 하수 정당도 아닌 열린우리당이 집권한 2005년 오늘, 나는 박정희 정권에 저항해 독재타도와 민주쟁취를 외쳤던 소위 긴급조치 세대가 정치적 집권에 성공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긴급조치 세대가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국가관을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까지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78년 9월 신체검사를 받았다. 유인물을 뿌리고 잡혀가기 직전이었다. 구속 당시에 이미 영장이 나와 있었는데 79년 4월에 입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당시 부친이 대한항공에 말직으로 근무하셔서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79년 4월에 군대에 갔을 것이고, 구속이 되지 않았더라면 대한항공에 입사해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연적인 요소로 운명이 바뀐 셈이다.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는 운명과도 같은 우연이었다.

## 내가 긴조세대라는 것을 일깨우는 조그만 일들



여균동 서울대 철학과 77(재입학 79)학번. 창작과비평사 편집부, 극단연우·광대배 활동, 민요연구회·노동자문화운동연합 활동, 사회사건연구소·사진통신 활동, 영화감독(현)

### 인터뷰

지금 나는 '비단구두' 라는 작품을 편집하고 있다. 매우 적은 돈으로 영화를 만드느라 근심을 이고 산다. 내용은 치매에 걸린 노인의 가짜 고향방문기.

그리고 모 잡지사와의 인터뷰를 한다. "가족 가운데 실랑민이 있느냐, 왜 이런 내용의 영화를 근심을 싸안으면서 하느냐, 혹시 당신이 당사자냐?" 그런 질문일 게다. "한 다리 건너면 이산 가족의 아픔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슬며시 질문을 피한다. 나는 속으로 이것을 '당사자주의' 라고 칭한다. 마음 한편이 무겁다. 이미 마감을 넘긴 원고생각 때문이다. 긴급조치9호 세대들이 기록을 남긴단다. 당사자인 나한테도 글을 써달라고 해서 진성으로 "예, 예" 하고 전화를 끊은 이후, 계속 머리가 무겁다. 심지어 편집실 건너편 중국집 주인 아줌마가 신문에서 내 얼굴을 봤단다. 무슨 말인지 몰라 비단구두 영화기사인가보다 하고 "예, 예" 하며 지나치려니 신문을 들고 왔다. 내 사진이다. 또 긴급조치9호다. 인터뷰 기자가 말꼬리를 잡는다.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젠 취조하듯이 달려든다. 장황하게 설명한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어도 이산가족, 분단, 실랑민, 치매 등등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